



●김오수 변호사 '공직자 총무공' 출간

공직자 출신 법조인이 430여년 전 '구국 영웅' 총무공 이순신의 인생여정을 되새기며 이 시대 공직자 상을 제시한 저서를 출간해 눈길을 끈다. 제44대 검찰총장과 제16대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오수(사진) 변호사가 최근 '공직자 총무공-이순신의 삶으로부터 배우는 공무원의 길' (동아시아 판)을 펴냈다.

# 이순신 삶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길

33년 공직생활 길잡이 된 이순신 인생여정  
철두철미한 '인간경영' 전문가 모습 담아내

이 책은 김 변호사가 성과도 같은 '공직자 이순신'의 인생여정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33년 공직생활을 돌아켜 보는 내용과 소회를 담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난중일기'를 읽으며 총무공을 존경해왔던 김 변호사가 이순신을 통해 공직생활을 돌아보는 이유는 첫째로 오랜 시간 동안 '총무공 이순신'이란 결출한 인물을 위대한 이정표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가 총무공에 대해 지닌 마음은 존경심 그 이상이다. 공직생활 중 '거인' 이순신을 의식하고, 본받고자 했던 그의 각별한 생각과 자세가 이 책에 담겨 있다. 특히 이순신이 31세에 함경도 동구비보(함경도 삼수 지역) 군관(종9품)으로 임명됐던 것처럼 김 변호사 역시 31세인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던 것은 시대를 넘어 우연한 인연이 됨을 보여준다. 그는 강진 고검도 총무사 인근 지청에 부임해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총무사를 찾아 잠배하고 검찰총장실 복도에 거북선 모형을 전시하는 등 총무공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총무공의 발자취를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다 뚜렷해지는 기분이 들었다"며 "수많은 공직자들도 이를 함께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책을 낸 또 하나의 이유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관계가 최근 들어 심상치않다고 느낀 점을 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일본은 지난 역사에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안겨줬던 나라"라며 "하지만 여태까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수시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현재 일본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며 "이러한 때 야말로 일본의 무도한 침

략에 맞서 백성들을 지켰던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공직자, 총무공을 생각할 때"고 강조했다. 이 책에는 조선시대 관직과 군사제도를 비롯해 ▲공직에 입문하기까지 ▲총무공의 공직생활 ▲공직 입문과 1차 파직 ▲복직과 2차 파직 ▲왜란의 조짐과 파격 인사 ▲운명의 전라좌수사 취임 ▲임진왜란 발발과 전개 등을 엮어 놓았다. 이어 ▲왜란에서의 활약 ▲명군의 참전과 지루한 대치 ▲삼도수군통제사로서의 일 ▲길고 험난했던 왜군과의 대치 ▲압송과 투옥, 백의종군 ▲삼도수군통제사 재임명과 명량해전 ▲수군 재건과 노량해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대해 흥미와 관심이 많았고, 공직자가 된 이후는 공직자의 표상으로 항상 총무공을 생각하며 근무했다"면서 "배우고 따르고 싶었던 마음의 스승 총무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30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김오법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에는 한평생 공직에서 일한 사람이 바라보고 정리한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 장군과 그 주변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삶과 이력이 꼼꼼하게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오수 변호사는 영광 출생으로 광주대동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0기 사법연수원생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3년간 화천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장흥·서울·부산·수원·광주·원주·성남·청주·세종·진천·괴천 등지에서 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차관, 검찰총장 등으로 근무했다. 2021년 제44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관리했고, 국민 중심 검찰을 목표로 검찰 업무 혁신을 시도했으나 2022년 5월 정지권에서 소위 '김수완법'을 추진하자 검찰을 대표해 반대하다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전남대 연구석좌교수로 있다가 지난 5월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 청소년 진로·직업개발 '나침반'

안종수·안진표·안홍표·박슬기 '직업 선택 학과 선택' 출간

우리 아이들의 미래,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요? 신입사원 80%가 2년 이상 준비해 취업한 직장을 3년 이내 퇴사하는 현실이다. 주요한 원인은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직업 정보를 정확하게 모른채 진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출판사 바른북스가 청소년 진로 및 직업 분야 신간 '직업 선택 학과 선택' (안종수·안진표·안홍표·박슬기 저자)을 펴냈다. 이 책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진로와 직업을 개발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담겨있다. 책은 ▲기본 인성 기르기 ▲자신의 정체성 진단 ▲직업 정보조사 ▲진로선택과 진학 ▲취업과 창업으로 구성됐다. 책 첫 부분에서는 어떤 직업에서든 성공하기 위해 자신감, 사회성, 인내심 등을 기를 것을 이야기하며 그 방법을 제시한다. 다음 단계로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 직업심리검사와 직업 정보 탐색, 가업승계, 주변 인맥과 환경조사, 자신의 성향, 주변인 평가, 미국의 적성검사 웹사이트, 챗GPT 등 여러 실용적



인 검사와 조사수단을 사용해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이 책 부록 3'나의 미래 직업 노트(직업-전공계산서)'는 자녀가 작성할 서식으로,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한눈에 파악해 진로와 직업을 찾아내게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책에서 일부 참고해 자신의 미래 직업을 찾아가도록 한다. 책의 대표저자인 안종수 전 호남대 교수는 20년 이상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켜보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을 펴냈다. 여기에 자신의 두 아들 가족과 함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 안진표 박사는 서울대에서 식품영양을 전공했으며 천연화학물 분야에 흥미를 깨닫고 현재 미국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저자 안홍표는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 첫 직장인 KOICA에서 경력을 시작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갖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독자들과 함께 나눈다. 박슬기 저자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왔다. 안종수 대표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부모와 자녀가 원활한 소통으로 진로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새로 나온 책



▲A보다 더 높다=조필 저자  
디카시의 매력과 창작의욕을 북돋우는 시집이 발간됐다. 조필 시인(광주 디카시인협회 대표)이 펴낸 디카시 2집 'A보다 더 높다'이다. 이번 시집은 총 4부 90편 시와 함께 책 말미에 디카시 칼럼에 대해 실었다. 디카시 어원과 작성법부터 디카시 서정법, 사유, 아포리즘, 사진예술, 생활문학에 관한 글과 함께 디카시를 한판씩 수록했다. 조필 시인은 "숫문화에 익숙해져가는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디카시는 삶에 생동감 넘치는 율활유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사진이 시작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덧붙여줌으로써 작품에서 전해지는 울림이 큰 여운으로 남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퍼플1만5천원



▲바위 뚫고 자란 나무는 흔들려서 좋았다=이지담 저자  
이지담 시인의 시집 '바위 뚫고 자란 나무는 흔들려서 좋았다'가 출간됐다. 첫 시집에서부터 일상의 경험을 구체적인 언어로 노래하면서 존재론적 탐구를 지속해온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관계의 문제로 시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관계에 대한 시선은 특히 제3부에서 제주4·3, 연순사건, 광주5·18민주화운동, 최근의 이태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부조리한 역사와 사회의 문제를 확대한다. '존재와 관계'의 영역을 탐구하는 시인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편들을 만나볼 수 있다. /문학들·1만2천원



▲어떤 어른은=김소영 저자  
이 책에는 작가의 일터인 독서교실을 비롯해 세탁소, 동네 식당, 산책로 같은 일상의 공간과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와 어른이 서로 바라보고 대화하고 스쳐 지나가는 다양한 순간들이 등장한다. 법과 제도, 역사와 문화의 얼굴을 한 어른과 그 울타리 안에서 내일의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어린이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어린이가 가까이에서 쓴 생동감 넘치는 일화들을 통해 독자는 어린이 시선이 닿는 지리에 있어야 할 어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기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사계절·1만8천원



▲별점 반장=이나영 글, 유시연 그림  
작가는 사람들이 별점에 의존하는 이 유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성공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미워 짐작한다. 사회는 나와 타인을 처근처근 알아가려는 시간과 시도를 용인하지 않는다. '평범한 것'과 '특별한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도달하지 못한 삶과 개인을 평가한다. 온라인과 SNS 속에서는 솔직한 이야기가 아닌 화려한 모습이 높은 '좋아요'와 관심을 받는다. 이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더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고 그들처럼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격려가 아니라 '진실'이다. /우리학교·1만4천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1-9954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